

<어떻게 오셨습니까?>는

1)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?	→	방문 목적
2) 어떤 일입니까?/무슨 일입니까?	→	놀람·의아
3) 무슨 수로 올 수 있었습니까?	→	수단

등의 의미로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됨.

1)

관공서나 은행 등에 업무를 보러 가면 고객에게 어떤 용무로 왔느냐는 의미로 보통 <어떻게 오셨습니까?>라고 하는데, 이는 방문한 목적을 묻는 것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됨.

2)

하지만 사적(私的)인 관계에서 <어떻게 오셨어요?>라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다소 놀라움을 표하며 어떤 일 또는 웬일이냐고 묻는 것.

3)

‘어떻게’가 ‘무슨 수로’라는 의미로 직역을 해야 뜻이 통함.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어떤 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로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온다든가 하는 경우. 일례를 들면 가령 해외에 사는 누군가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고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편이 취소가 된다가나 해서 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한국에 왔다고 하면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을 써서 왔느냐는 의미로 물을 수가 있겠음.

한국어 학습자들이 숙지해야 할 것은 <어떻게 오셨습니까?>가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왔는지 (또는 걸어서 왔는지를) 묻는 게 아니라는 점.

결론적으로, 공공기관을 방문한 손님 (민원인·고객)에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왔는지 궁금해 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듯하고, 그렇기에 장난이 아닌 이상 <어떻게 오셨습니까?>라는 물음에 ‘차 타고 왔다’라는 대답은 맞지가 않음.

(드라마 ‘더 글로리’에서의 한 장면: 예술이의 학교를 찾아간 전재준이 교무실에서 ‘어떻게 오셨습니까’라는 물음에 ‘차 타고요’라고 한 대답도 장난의 한 범주)

참고로 누가 어떤 교통 수단을 통해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면 ‘뭐 타고 오셨습니까?’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장.